

#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정읍서 만난다

도립미술관·정읍시립미술관 공동 기획전시 '짧은 나들이' 14일 개막

전북도립미술관의 소장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시 '짧은 나들이'가 오는 14일 연지아트홀 전시실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전시는 지역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북도립미술관과 정읍시립미술관의 협업을 통해 공동 기획했다. 특히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 일환으로 시민들이 물리적 거리감으로 느끼는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도립미술관 소장품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시회에서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현재까지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한 축을 이루는 작가 15명의 현대미술 작품 18점을 살펴볼 수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서희화 작가의 'Happy-English' 평면 작품을 시작으로 원색의 풍경을 담아낸 인물과 풍경화 등 추상적인 작업 경향의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김성석 작가의 '무엇이 되어 살고'를 비롯해 인물, 사물, 자연의 풍경 등이 입체적으로 표현된 다양한 조각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4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약 5주간 이어지며 관람료는 무료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시는 연지아트홀 전시실에서 찍은 인증사진을 SNS에 홍보하거나 전시관련 인증사진을 찍어 시립미술관에 방문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미술관 관계자는 "연지아트홀에서 열리는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은 통해 미적 사유와 감수성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 내 미술 문화의 저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립미술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프로그램 '미술관에서 함께 꿈을 찾자'를 비롯해 '미술관 예코 정원'과 '미술관 똑딱 아지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시 및 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063-539-5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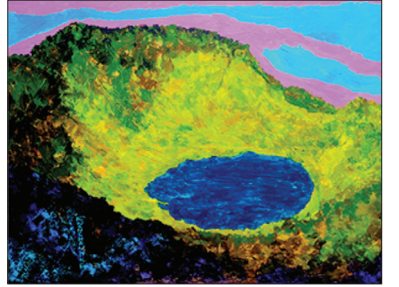


전북도립미술관-정읍시립미술관 공동기획전시 '짧은 나들이' 포스터

# 권찬희 개인전 '여정 STORY 향기'

전북도립미술관에서 12~17일 개최

권찬희 개인전인 '여정 STORY 향기'가 오는 12~17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작가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서 '여정(旅程)'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여정'은 자연을 탐미하는 방식으로써, 그에게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다. 주로 풍경을 카메라로 담아 실내에서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닌 실제의 눈으로 목격한 바를 그려낸다. 산을 오르거나 걷는 도중, 마음에 드는 풍경을 찾으면 간단히 자리를 잡고 앉아 5호 남짓한 스케치북에 수채화로 그려낸 뒤, 작업실에서 큰 화면에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듯 작가의 '여정을 통한 그리기'는 구체적인 작품 제목에서도 드러난다. '가을 한라산', '무등산 서석대', '월출산 사자봉' 등과 같이 구체적인 장소들은 작가가 저곳에 머물렀다는 하나의 방증으로써 자연과 교감하며 그려낸 결과물이다. 작가의 작업 방식은 자연을 직접 대면하고 느낀 심상을 화폭에 담아낸다. 이러한 점에서 권찬희 작가의 작품에서는 대상의 사실성이 아닌 대상과 교감하며 그려낸 '정서'에 있다.



권찬희-가을 한라산

권 작가는 "이번 전시 '여정 STORY 향기'를 통해 관람객들이 자연과 교감한 결과물로서의 작품들을 보고 저마다의 '이야기'와 자연의 '향기'를 떠올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권 작가는 원광대학교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미술협회, 전북여성미술인협회 등에 소속돼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열여섯 번째 개인전이며, 이 밖에 '수채화 누리전', '영·호남 여류작가 교류전' 등을 비롯해 다수의 기획전 및 단채전에 참여했다. /정은성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체험형 마술공연 '공룡 애니멀쇼'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정상기)은 오는 22일 오후 5시 박물관 강당에서 올해 첫 야간개장으로 마술공연 '공룡 애니멀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마술이라는 신비한 장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과 공룡을 더해 기존 마술쇼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 된 레퍼토리로 구성했다. 특히 화려한 무빙 라이트와 조명을 활용해 공연장을 환상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공연의 시작을 알리면, 사람이 되기 위해 100일 동안 마늘과 숙면 먹고 이겨낸 비둘기의 이야기를 일투전 마술을 통해 보여준다. 또한 공연의 마지막에는 작은 장난감 공룡들

이 거대한 공룡으로 변신하고 나타나 관객들에게 실감을 더해준다. 다양한 구성과 재치 있는 퍼포먼스로 친근감 있게 진행해 공룡을 무서워할 수 있는 어린이들도 즐겁게 참여 할 수 있다. 관람예약은 12일부터 선착순으로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에서 접수한다. 입장인원은 최대 230명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과 공룡을 주제로 한 마술공연을 통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 저녁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매달 다양한 연계를 대상으로 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1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조성된 전통놀이 문화 거점 공간인 우리놀이터 마루달에서 우리놀이 청소년 서포터즈 3기 발대식 행사를 가졌다.

# 우리놀이 청소년 서포터즈 3기 출범

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놀이 홍보 활동

우리놀이의 가치를 대내외에 알릴 청소년 서포터즈가 출범했다. 1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조성된 전통놀이 문화 거점 공간인 우리놀이터 마루달에서 우리놀이 청소년 서포터즈 3기 발대식 행사를 가졌다. 청소년 서포터즈는 전통놀이의 즐거움과 가치를 널리 전하고, 우리놀이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이다. 잊혀져가는 세시풍속 및 전통놀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우리놀이의 진흥과 올바른 놀이문

화 활성화를 위해 구성됐다. 완산여자고등학교 청소년 12명으로 구성된 우리놀이 청소년 서포터즈는 전주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 운영한다. 서포터즈는 마루달에서 진행되는 각종 놀이행사에 직접 참여해 우리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전통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일상 속에 놀이문화가 생활화 되길 바란다"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전통을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영화학교 수강생 모집

전주영상위원회는 오는 18~25일까지 전주영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로 4기 수강생을 모집하는 전주영화학교는 지역의 영화연출을 희망하는 영화인을 대상으로 영화연출과 장편 극영화 시나리오 기획·개발 멘토링을 통한 시나리오 완성, 주제별 특강 등 영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으로 운영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기준 만 18~39세 이하의 전라북도 거주자 및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 전북 소재의 영화·영상 관련 학과 졸업 예정자로, 선정된 수강생은 5월 중순부터 약 5개월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강사진은 작년에 이어 '세자매'의 연출, 촬영, 미술, 편집 파트와 '윤희에게'의 제작, 편집 파트가 맡았다. 또한 수강생들이 교육기간 내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100만원의 교육지원금 지급 및 시나리오 기획개발 멘토링 이후 완성한 장편 시나리오 심사를 통해 수강생 중 3인에 각 700만원의 기획개발비도 지원한다. 한편 접수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jjfc.or.kr)에서 지원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기획홍보팀 이메일(jjfcpr@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